

# 광주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거센 반발에 ‘무산’

市, 삼도동행정복지센터서 예정  
동 주민·함평군민 행사장 점거  
시청서 “위장전입 수사” 촉구도  
광주시 “설명회 재추진 등 검토”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려던 광주시 관계자가 주민들의 저지로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인 주민설명회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광주시는 26일 오후 2시 광산구 삼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삼도동 주민들과 함평군민들의 거센 항의로 설명회를 열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선정된 삼거동 일대 환경 등을 분석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하나로, 시는 초안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초안에는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 ▲건강 ▲산업·에너지 등 항목별 조사 방향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삼도동 주민 70여명이 동행정복지센터 2층 계단을 점거해 시 관계자 출입을 막았고, 함평군민 60여명도 현장에 합류하면서 설명회는 무산됐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통행로

확보를 요청했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결국 되돌아갔다.

주민들은 “공모 기간 중 삼거동으로 전입한 30여 세대는 위장 전입자”라며 “이들은 실제 거주지의 동·호수조차 모르고 있는데도 시는 진정서 접수 이후

실거주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함평군민들 역시 “삼거동 부지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과 침출수 유출 위험이 있어 인근 3개면(월야·해보·나산) 주민 4천여명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광주시는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광승열 광주시 자원시설팀장은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광산구청에서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며 “설명회를

공고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삼도동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 설명회 일정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함평군민들로 구성된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저지 함평군민대책위원회’가 광주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오민수 함평군민대책위 상임대표는 “전남도와 함평군이 오랜 협상 끝에 최근 ‘SOC 미래비전 정책사업’ 유치에 합의했는데, 반경 5km 이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광주시는 군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즉각 사업을 철회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삼도소각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농민회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잔성률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종교시설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시와 구청이 이를 묵인한 만큼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법에 대비해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추진 중이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후보지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육근·주성학 기자

## 광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 ‘만13세 미만’

해바라기센터 개소 20주년

최근 7년 피해사례 80% ‘채팅앱·SNS’  
가해자 비율도 최근 5년 만13세 미만 ↑

광주 지역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만13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해바라기센터가 개소 20주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는 총 3천523명이었으며, 이중 55.2%인 1천947명이 만13세 미만으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같은 미디어 매체로 인한 피해사례가 25.4%였다.

미디어 매체별 비율로는 채팅앱 61%, SNS 21%, 게임 앱 5%, 기타 13% 등으로 최근 5년간 채팅 대상에 의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가해자 비율도 만13세 미만 연령대에

서 증가했다. 만19세 미만 가해자 비율은 최근 5년간 38.9%로 과거와 비슷했지만 만13세 미만의 가해자 비율은 17.8%로 앞선 15년 평균(13.9%)보다 4%p가량 늘었다.

한편 광주해바라기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법률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해진 피해 유형에 대해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서 증가했다. 만19세 미만 가해자 비율은 최근 5년간 38.9%로 과거와 비슷했지만 만13세 미만의 가해자 비율은 17.8%로 앞선 15년 평균(13.9%)보다 4%p가량 늘었다.

한편 광주해바라기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법률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해진 피해 유형에 대해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학동 참사’ 입찰비위 항소심 변론 종결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 철거 공사의 입찰 가액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간부와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

년·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을 각각 선고받은 현산 간부 A(50대)씨와 한솔기업 대표 B(50대)씨, 현산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9일 철거 작업 중 건물 이 붕괴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심에 앞서 이뤄진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현산 측은 입찰 가액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신문 후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파기와 종전의 구형(각각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 ‘기아차 취업사기’ 노조 대의원 내달 2심 선고

1심 ‘징역 4년’...피해자 5명·4억여원  
광주경찰, 관련 수사 마무리 수순

기아 오토헨드 광주공장 노조 간부 시절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전날 열었다.

A씨는 기아 오토헨드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4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의원 직책을 내세우며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받았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 당했고 올해 1월 돌연 사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 항소했으며 검찰은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 지역 일선 경찰서에 ‘기아 오토헨드 광주공장 취업사기’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관련 사건 3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2건은 송치됐고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수사 중이나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